

■ 그림 여행



**플리머스의 추수감사**  
(Thanksgiving at Plymouth c. 1925)

지니 어거스타 브라운스콤  
(Jennie Augusta Brownscombe 1850 - 1936)  
캔버스에 유채 30 in x 39 1/8 in  
미국 국립 여성 미술관

역사적인 사실은 이렇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으로부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 온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했다. 혹독한 첫 겨울을 지나는 동안 반수 이상이 추위와 과열병으로 사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1621년에 성공적인 첫 추수를 축하했다. 이들의 생존을 도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초대되어 참석했고 모든 사람들이 야생 조류, 사슴, 견과류, 열매, 곡식 등으로 구성된

만찬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

해피 엔딩 같지만 피눈물 나는 생존기가 아닐 수 없다. 1621년 이후에도 청교도들의 생존 투쟁은 계속 되었고 추수감사절 전통 또한 계속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국의 점진적 변명과 함께 생존의 절박함은 사라지고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미국 화가 지니 어거스타 브라운스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 집안의 직계 후손이라고 한다. 1925년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면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고 실제 인물들의 초상화를 찾아 보면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플리머스의 최초 추수감사를 묘사하도록 노력했다. 완성된 그림을 본 후원자들과 비평가들은 실제 첫 추수 감사절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고 평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그림이 실제의 역사와는 멀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나 안정되고 따뜻한 전체 분위기 속에(모든 인물의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인다) 배경에 그려진 통나무 집(통속적이다)과 요란한 깃털 머리장식(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인디언 복장일 뿐이다)을 하고 멀뚱히 앉아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까지 실제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 그림은 1925년 당시 미국의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이민의 물결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대다수 미국인들의 과거에 대한 향수를 표현했다는 평이 우세하다.

피땀 어린 역사도 시간이 흐르면 때로 이상화 되고 정형화 된 이미지로 집단의 기억에 편입되곤 한다.  
김동백

한인이 운영하는 청소재료상 중 가장 큰

**Brother's**  
**청소재료상**  
Janitorial Supplies



**도매**  
**최저가격**



**무료배달**

가정용 청소기구 재료에서부터  
큰 빌딩 청소 각종 기구,  
재료까지 완벽하게 구비!

각종 청소기계 수리 전문!  
최신 청소기계 재료 다량 확보

각종 새로 개발된 청소약품  
화장지 / 각종 종이 / 타일 / 대리석  
카펫 샴프 기계 / 왁스 기계  
최신형 장비 일절 구비

Open : Mon-Fri 9am-6pm / Sat 10am-4pm

**(562) 920-9090**  
**(562) 920-9595**

Fax. 562-920-9596

16211 Bellflower Blvd. Bellflower, CA 90706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연말파티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 waiter, waitress 구합니다.\*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요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